

편집 및 발행인 : 김종덕 · 발행처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
감수 : 이연경 · 담당자 : 권보배 전화번호 : 051-797-4774 · E-mail : ekleee@kmi.re.kr / b2kwon@kmi.re.kr

Contents

● 국제물류 통계

- 금년 글로벌 화물 포워딩 시장 규모, 작년 대비 역성장 폭 커질 전망

●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

- 싱가포르 MPA 국제선급협회, 디지털·탈탄소화 이니셔티브 협력
- ONE, 베트남-싱가포르 신규 서비스 개설

● 미주·중남미 물류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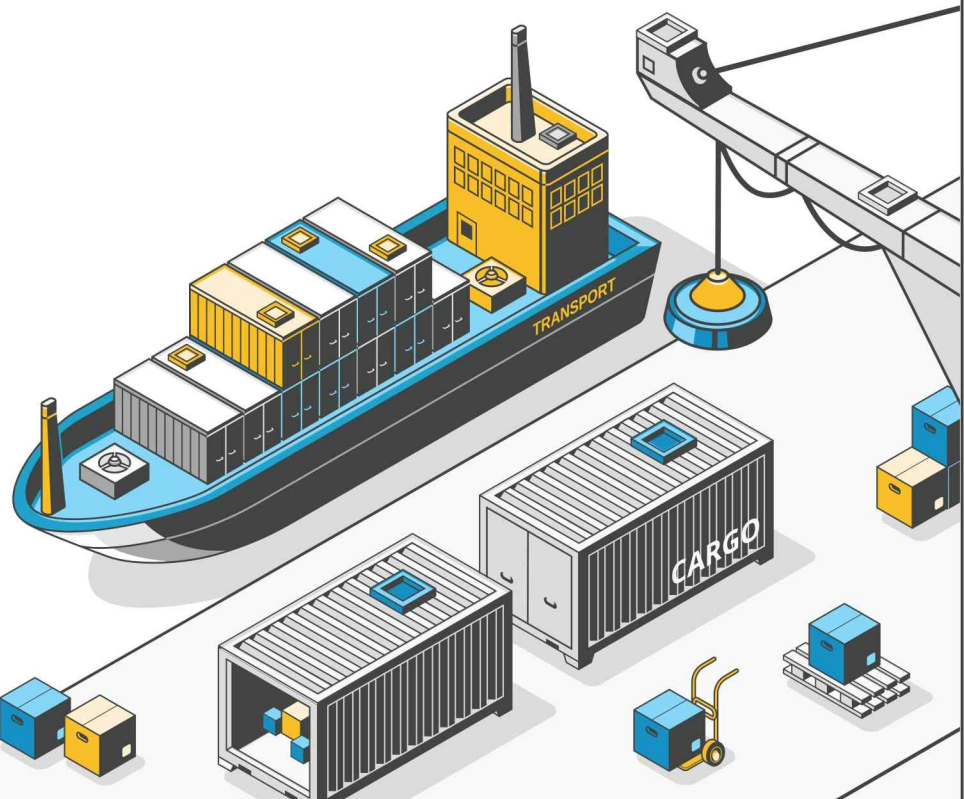
- APM Terminal, 남미 주요 터미널 투자 확대

● 유럽 물류시장 동향

- 머스크, 아시아-유럽 항로에 첫 메탄올 추진 선박 운항 예정

● 공지사항

- “국제물류 정보포탈”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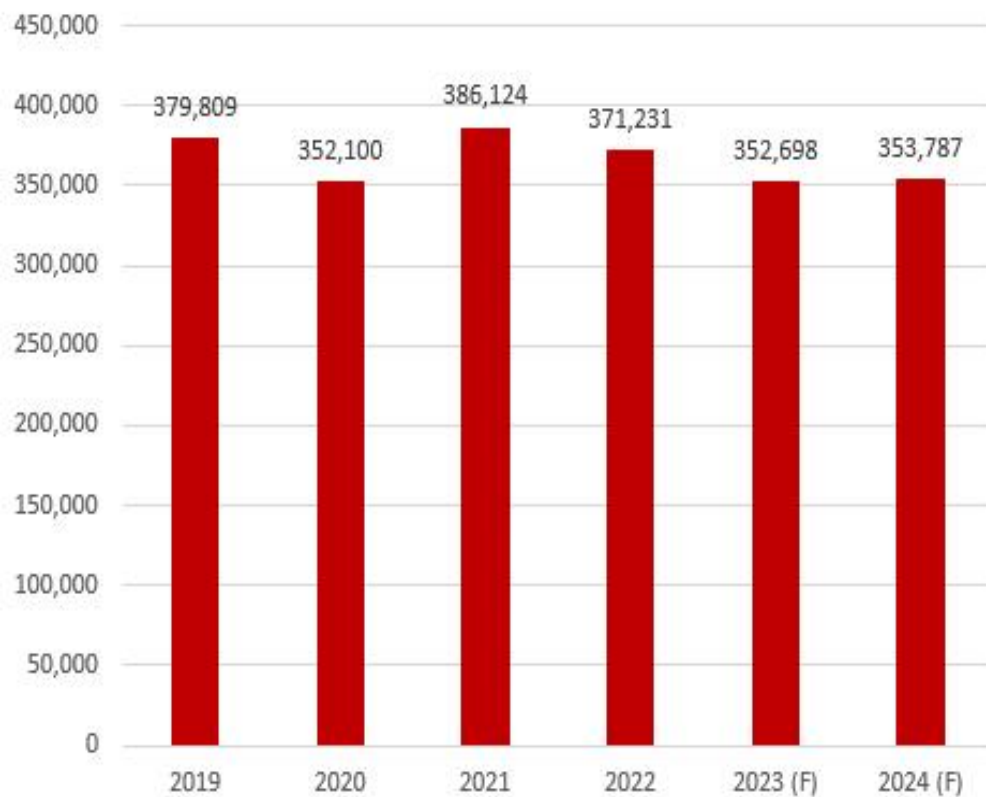
금년 글로벌 화물 포워딩 시장 규모, 작년 대비 역성장 폭 커질 전망

▶ 금년 글로벌 화물 포워딩 시장 규모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역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며 역성장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

- Transport Intelligence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금년 글로벌 화물 포워딩 시장 규모는 3,526억 9,810만 유로로 지난해 3,712억 3,070만 유로에 비해 약 5%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
- 이는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하락한 항공 및 해상운송 운임비가 포워딩 서비스 이용료 책정에 반영된 점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
- 한편, 내년 글로벌 화물 포워딩 시장 규모는 3,537억 8,700만 유로로 약 0.3% 성장해 역성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는 코로나 직후 최대 규모를 기록한 2021년에 비해 여전히 위축된 시장 규모로 볼 수 있음

글로벌 화물 포워딩 시장 규모(2019-2022년, 2023-2024년(전망))

(단위 : 백만 유로)



자료 : www.gscintell.com(검색일: 2023.12.12.)

➤ **글로벌 화물 포워딩 시장을 해상 및 항공 운송 수단 별로 살펴보아도 이와 유사한 추세를 보임**

- 올해 항공 화물 포워딩 시장 규모는 1,360억 700만 유로로 전년(1,443억 8,110만 유로) 대비 5.8%의 역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
- 해상 화물 시장 규모 또한 지난해 2,166억 9,200만 유로로 전년(2,288억 1,943만 유로) 대비 약 5.3%의 역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

싱가포르 MPA 국제선급협회, 디지털·탈탄소화 이니셔티브 협력

- ▶ 싱가포르 해양항만청(MPA)과 국제선급협회(IACS)가 해양 디지털화 및 탈탄소화 이니셔티브에 협력하기 위한 의향서(LOI)에 서명함

 - LOI는 11월 30일 런던에서 열린 제33차 국제해사기구(IMO) 총회에서 Teo Eng Dih MAP 청장과 Nick Brown IACS 이사회 의장이 서명함
- ▶ 이번 합의에 따라 양 당사자는 새로운 해양 기술이 안전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기술 표준 및 표준화된 요구사항 개발을 진행할 예정임

 - LOI는 스마트 및 자율운항 선박, 디지털화 및 사이버 보안, 해양 전기화, 선박 제로 탄소화, 저탄소 연료 사용과 같은 핵심 영역에 중점을 둘 예정임
 - 협력의 일환으로 양 당사자는 업계 과제와 기회, 표준, 모범사례 및 최신 기술에 대한 토론을 포함한 정기적인 정보 및 지식 교류 세미나를 가질 예정임

MPA와 IACS 협력



자료: <https://www.one-line.com/> (검색일 : 2023.12.13.)

- Teo Eng Dih MPA 청장은 세계 해양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의 개발을 발전시키고 가속함에 따라 이러한 솔루션이 안전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조화된 표준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며, 우리는 선원의 안전과 해양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표준을 만들고 개발하기 위해 IACS에 기여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
- 한편 MPA는 2023년 9월 탈탄소화, 디지털화, 인재 개발 및 정보 공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이시 교통위원회와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함
 - MOU를 통해 해양 및 항만 개발을 위한 디지털화 및 탈탄소화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임

ONE, 베트남-싱가포르 신규 서비스 개설

ONE이 신규 VSX(Vietnam Singapore Express) 서비스를 발표함

- ONE은 베트남과 타 지역 간의 무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본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밝힘
- VSX는 하이퐁-까이몹-싱가포르-호치민-하이퐁을 순환하는 항로로 서비스 빈도는 14일로 격주 운항함

VSX 서비스 항로



자료: <https://www.one-line.com/> (검색일 : 2023.12.13.)

운항 일정

출발지	출발예정일/도착예정일	항만
하이퐁	목/금	Hai An Port
까이몹	월/화	Tan Cang Caimep International Terminal
싱가포르	목/금	PSA Corporation Limited
호치민	일/월	Cat Lai Terminal
하이퐁	목/금	Hai An Port

자료: <https://www.one-line.com/> (검색일 : 2023.12.13.)

참고자료: <https://www.one-line.com/en/news/new-service-vietnam-singapore-express-vsx> (검색일: 2023.12.13.)

APM Terminal, 남미 주요 터미널 투자 확대

- ▶ 브라질 Santos항의 APM Terminal 합작사인 Brazil Teminal Portuário(BTP)가 최근 20년 임대계약 조기 갱신을 진행함

 - BTP는 APM Terminals와 Terminal Investment Limited 간 합작투자회사로, 컨테이너터미널 전용부두를 2011년부터 운영했으며, 동 기간동안 약 1,489만TEU를 처리함
 - 계약기간은 2027년 1월22일부터 2047년 1월21일까지 유효하고 서명 이후 3년 이내 새로운 신규투자를 포함하는 조건임
 - 브라질의 Ministry of Ports and Airports(이하 MPor)로부터 검토 후 승인받은 계약조항에는 임대 연장이 후 인프라, 항만장비 및 화물 처리능력 증설을 위한 3억달러 초기 투자가 포함됨
 - 본 투자를 통해 화물 처리능력을 40% 이상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, 운영건물 이전을 통한 23,406 m² 확보, 트럭 전용도로 개설, 4기의 GC 도입, 리퍼컨테이너용 플러그 추가 설치 등 항만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선 사업이 진행될 예정임
- ▶ APM Terminal의 브라질 내 컨테이너터미널 확장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도 현재 진행 중임

 - APM Terminal은 브라질 전역에 걸쳐 Itajai 및 Itapoa(모두 Santa Catarina, Paranagua(Parana), Rio Grande(Rio Grande do Sul) 및 Pecem(Ceará)) 등 5개 터미널을 운영 중에 있음
 - Keith Svendsen ARM Terminal Global President는 2026년까지 브라질 내 주요 터미널 현대화 및 시설 확대를 위해 10.5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 밝힘
- ▶ 페루 Callao항의 터미널 현대화 확장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 또한 진행 중임

 - 12개의 수직사일로 건설, 일반화물 출입게이트 개선, 21,300m² 면적의 터미널 포장작업 등 약 9,500만달러 규모의 3A 단계의 다목적부두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음
 - 터미널의 연간 컨테이너 처리능력이 110만TEU에 도달하면, 약 5억달러 규모의 3B단계 확장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며, 440m의 컨테이너 부두 추가 건설, Super Post Panamax 용 GC 4기, eRTG 12기, YT 33대를 도입해, 최대 280만TEU까지 확장할 예정임
 - 크레인 장비 투자 등 선석생산성 향상에 투자중인 Callao 터미널은 현대화 작업 이후 환적컨테이너 처리량이 주당 600TEU에서 2,000TEU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, 남미 내 환적 허브로 터미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

APM Trminal의 Callao 항 3A 확장 프로젝트


자료: APM Terminals 홈페이지

-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글로벌 소싱 전환으로 인해 남미지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투자가 지속됨에 따라, 글로벌 선사·터미널·물류기업 등의 낙관적 수요 전망에 따른 지분 인수, 그린필드식 시설 확충 등 다변화된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
- 남미의 신선식품 수출 확대에 따른 콜드체인 시장 성장세, 전자상거래 무역 확대 가능성 등에 의해 터미널을 비롯한 남미의 물류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
 참고자료: <https://www.seatrade-maritime.com/> (검색일: 2023.12.12.)

 김대현 전문연구원
 051-797-4788, kdh@kmi.re.kr

머스크, 아시아-유럽 항로에 첫 메탄올 추진 선박 운항 예정

- 머스크가 현재 발주 중인 18척의 대형 메탄올 추진 선박 중 첫 번째 선박의 운항을 앞두고 있음

 - 해당 선박은 2024년 2월 9일 중국의 Ningbo에서 탄중펠레파스, 콜롬보, 독일의 함부르크까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AE7 노선에 첫 취항을 할 예정임
 -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이 건조하고 있는 해당 컨테이너선은 16,000 TEUs이며 이중 연료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 메탄올은 물론 바이오 디젤과 재래식 벙커 연료로도 운항이 가능함
 - 해당 선박은 운항을 앞두고 2024년 1월 말 조선소에서 명명식이 진행될 예정임
- 머스크의 Karsten Kidahl 최고상업책임자(Chief Commercial Officer)는 해당 선박의 운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

 - “세계에서 가장 큰 항로 중 하나인 아시아 - 유럽에 첫 번째 메탄올 추진 선박을 투입 운항하는 것은 넷제로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음”
 - “16,000 TEUs의 해당 컨테이너 선박 운항은 공급망의 탈탄소화를 위한 화주의 노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2024년에는 이뿐만 아니라 다른 항로에도 더 많은 메탄올 지원 선박을 도입하기를 기대함”

머스크의 도입 예정 메탄올 추진 선박



자료: www.ti-insight.com(검색일: 2023.12.12.)

➤ 머스크는 사업 전반에 걸쳐 2040년까지 넷제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설정했으며 2030년까지의 가시적인 단기 목표도 설정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음

- 머스크는 현재 AE7 노선에 투입할 메탄올 추진 선박의 첫 항해를 위해 충분한 양의 메탄올 연료를 확보했으며 2024-25년에 운항할 메탄올 자원 선박 선단을 구성해 계속해서 메탄올 연료 확보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
- 2024년 상반기 중에는 위의 선박 외에도 일본 요코하마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명명식을 진행 후 두 척의 자매선을 추가적으로 투입할 예정임
- 또한 2024년 하반기에는 4척의 자매선도 추가로 인도받을 예정임

『국제물류 정보포탈』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



친구 추가 방법

1. 카카오톡 메인화면
상단 친구 검색



2. 『국제물류 정보포탈』
검색



3. 친구추가 버튼

